

#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 파견대학 정보

대 학 명	시안외사대	기숙사비	765,000/한 학기
파견지역	산시성 시안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
파견기간	2019년 9월~2019년 12월	기타비용	

## ■ 파견자 정보

성 명	△△△	학 과	△△△학과
성 별	여	학 년	3학년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20. 01 . 16 .

파견자 : △△△ ( 서 명)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 대학 현황 보고서

## ■ 수업

처음 가면 필기시험과 1대 1 회화시험으로 반 배정을 합니다. 반은 중 1반부터 5반까지 있으며 5반이 가장 높은 반입니다. 배정받은 반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OT 없이 바로 수업을 진행하니 변경을 원한다면 빨리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업은 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3반은 읽고 쓰기, 듣기, 말하기, HSK 수업이 있으며 듣기 수업과 읽고 쓰기 수업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읽고 쓰기 수업의 수업지도 방식은 단어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단어가 들어가는 부분까지의 본문을 공부합니다. 본문을 공부하는 와중에 나오는 문법들은 중간중간 본문 뒤에 있는 연습문제 등을 풀며 익힙니다. 과제는 매 단원의 단어공부가 끝나면 선생님이 뽑아 주신 단어 10개를 병음, 한자, 그 단어를 사용한 문장 하나 만들어서 받아쓰기를 합니다. 중간고사는 4과까지, 기말고사는 8과 단어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듣기 수업은 듣기 지문을 듣고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과가 진행될수록 지문이 길어져 처음에는 스스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지문을 하나하나 해석해서 이해가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말하기 수업은 책에 있는 본문을 나가면서 가끔 선생님이 주시는 주제로 3명, 4명씩 자유롭게 토론하고 토론한 내용을 모두에게 다시 말해주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과제로는 매 단원의 본문을 나가기 전에 단어 받아쓰기와 가끔 주어진 어법을 이용하여 작문하기, 대화문 만들기가 있습니다.

HSK 수업은 쓰기(어순배열), 듣기, 독해, 작문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각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를 푸는 스킬, 문제 유형 파악하는 방법, 자주 나오는 유형 등을 가르쳐주십니다. 대체로 먼저 직접 풀어보게 한 다음에 각자 선택한 답을 말하고 틀린 선지는 왜 안되는지 이유를 말해주십니다. 과제로는 매 주 받아쓰기가 있고 받아쓰기를 보지 않는 날에는 받아쓰기를 본 단어 빈칸 채우기, 어순배열 등 꼭지시험을 합니다.

##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시안은 산시성에 속해 있으며 중국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위쪽으로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날씨는 비교적 건조한 편이었습니다. 19년도 시안은 선생님들이 이상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9월 말~10월달에는 비가 오락가락하며 그에 따른 기온차가 컸습니다. 그래서 긴 옷과 반팔 옷을 모두 꺼내 놓고 그 날 날씨에 따라서 굴라 입어야 했습니다. 10월 이후로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대체로 덜 춥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다는 말을 들었는데 12월 말 귀국시즌에 아침 일찍 나갔더니 ‘아, 밤새 눈이 왔었나..?’ 싶을 정도로 조금 온 것이 되었습니다. 9월 10월에는 날씨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11월 12월로 넘어오면서 공기가 심하게 안 좋았습니다. 평소 보이던 건물이 안 보이기도 하고 장시간 야외활동 시 목이 아프다거나 눈이 뻑뻑하다는 등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안외사대의 위치는 공항까지 택시를 탈 경우 약 1시간, 시안 성벽까지 지하철로 약 40~50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어 전체적인 교통은 편리합니다. 기숙사에서부터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게 되면 약 15분~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전거로는 약 10분 내외로 소요됩니다. 지하철 요금은 거리와 비례합니다.

지하철역 바로 앞에 비교적 큰 마트인 ‘화룬안지아’가 있어 생필품, 식품 등을 구입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학교 내에 세븐일레븐이 생겼으며, 북문에서 왼쪽으로 약 5분정도 걸으면 미니소가 있고, 동문에서 7분정도 걸으면 완디몰이 있습니다. 완다몰 지하에는 ‘화룬안지아’보다 조금 더 깔끔한 마트가 있습니다. 시안의 한인타운인 ‘뤄띠’까지는 택시로 약 15분~20분 정도 소요되며 요금은 17위안 정도 나옵니다. 학교 내에 빵집, 과일가게, 생필품 파는 곳, 네일샵, 복사하는 곳, 편의점, 카페 등이 모두 있습니다.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숙사 정보

비 용	4500위안 / 약 76만원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처음 기숙사를 배정받을 때 현금 50위안의 보증금을 내야합니다.		
주요사항	-방간 방음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조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2인실에 있는 주방 겸 배란다이다. 천장 위로는 빨래건조대가 설치되어 있어 빨래를 말릴 수 있습니다. 싱크대 옆 작은 테이블은 간혹 없는 방도 존재합니다. 냉장고, 커피포트, 인덕션, 전자렌지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나 생각보다 외관적으로 더럽게 느껴져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동장 쪽 방은 해가 잘 들어서 빨래가 잘 마르는 편이며, 호수쪽 방은 습도가 높기 때문에 빨래가 마르기까지 약 2~3일 정도 걸릴 때가 있습니다.



각자 사용할 수 있는 옷장입니다. 옷걸이의 개수는 각 옷장마다 랜덤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칸은 사진으로 보여지는 칸과 아래 2칸이 더 있습니다. 아래 2칸은 비교적 더럽기 때문에 신발이나 봉투에 쌓인 무언가를 보관하기에 적합합니다.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화장실은 깔끔한 편이었습니다. 변기 옆으로는 샤워커튼이 있어 샤워 시 물이 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방에 따라서 수압이 낮은 곳이 존재하며, 방마다 화장실 타일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각자 알아서 해야 합니다. 휴지는 제공해주지 않으며 교내 마트나 화문안지아, 타오바오 등에서 구매하면 됩니다.



침대 시트와 베개 커버, 이불 커버는 약 2주에 한 번씩 갈아주십니다. 침대는 적당히 폭신하고 침대와 침대 사이에는 각자 사용할 수 있는 서랍이 있으며, 반대쪽 벽으로는 각자 사용가능한 콘센트가 있습니다. 기본 콘센트 하나, USB 콘센트 2개로 구성되어 있고 콘센트 역시 잘 안되는 곳도 존재합니다.



기숙사 1층 로비입니다. 기본적인 방에 관한 문의사항은 각 층을 관리해주시는 아주머니께 문의하면 됩니다. 프론트에서는 세탁기를 사용할 때 필요한 세탁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탁카드는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 보증금 10위안, 충전금액 40위안으로 총 10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기숙사에서 나오자마자 보이는 운동장입니다.  
보통 날씨가 좋을 때에는 사진처럼 학생들이  
운동장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다거나,  
강아지, 고양이 등을 산책시킨다거나, 카드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운동장 조명은 10시가 되면 꺼집니다.



평소에 수업을 받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안에 게이트에 들어가려면 학생카드가  
필요하지만 유학생은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옆에 계시는 직원분께 유학생이라고 말씀드리면  
카드를 빌려주십니다. 나올 때도 역시 카드가  
필요합니다. 수업은 4층에서 받으며, KCC활동은  
5층 KCC 교실에서 진행합니다.



각 층마다 있는 세탁실입니다.  
한 층에 미니 세탁기가 2대씩 있습니다.  
세탁카드는 1층 프론트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1회 이용비용은 4위안입니다.  
세탁 시간은 표기되는 시간보다 약 5분~10분  
정도 더 사용이 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함께 이용하는 세탁기이기  
때문에 빨래가 끝나면 빨리 찾아가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교환학생 파견 수기

교환학생으로 지내면서 느낀 점은 '4개월은 생각보다 많이 짧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학기면 길다는 생각 때문에 '시안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고 천천히 시작하자'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을 때 교환학생을 하면서 해야 하는 일이 많았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았기에 왜 진짜 일찍 움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을 미루지 않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에 거리낌이 줄었습니다.

이번 교환학생의 가장 큰 목표는 중국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중국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시안외사대에는 한중문화교류 동아리인 KCC가 있어서 중국인 친구를 사귀기 쉽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시안외사대에 파견을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중국에 와보니 중국은 9월이 새 학년이 시작하는 달이고, 중국 대학교 1학년들은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KCC의 첫 모임은 10월이 되어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랜덤으로 배정되는 중국인 파트너 중에는 한국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있었고 90% 이상 1학년인 친구들이기 때문에 학교와 그 주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KCC에서 한 조에 16명이 배정되는데 그 조원들이 다 함께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미션을 주어서 시간, 의견 등을 맞추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된 중국인 친구들이 KCC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관심이 있는 다른 중국인 친구들을 소개해줘서 친해진 친구들이 더 많았습니다. 또한 운동장을 걷다가 애완동물을 데리고 있는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도 친구를 사귄 수 있습니다. 대체로 한국인에 대한 호기심이 커서 먼저 다가가면 잘 받아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중국어를 자연스럽게 쓰고 싶은 마음에 여행도 많이 다니려고 노력했습니다. 최소 달에 한 지역은 갔지만 의외로 여행을 다니면서는 중국어를 많이 안 쓰는 모습을 발견하곤 놀랐습니다. 호텔은 미리 예약하고 가고, 관광지는 한국 블로그 등을 통해 찾으니 여행 중에 쓰는 중국어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다거나 길을 물어보는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대륙이 넓어서 그런지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관광지들이 있어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을 하는 동안 다른 지역, 다른 학교에서 온 한국인 친구들과의 교류도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것들이 재미있었습니다. 만난지 약 2-3달 밖에 되지 않는 친구랑도 여행을 하는 날 발견하는 것도 꽤나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환학생 생활을 되새겨보면 교환학생을 신청하기를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가장 큼니다. 교환학생 파견을 통해서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중국어에 대한 흥미도 증가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4개월이었지만 돌이켜보면 내게는 너무나도 짧은 4개월이었고 기회만 된다면 조금 더 중국에서 이러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